

MC: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. 6·4 지방선거가 끝난 결과 잘 아시지만 인천광역시장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. 시의회도 지난 6기와는 달리 새누리당의 의석이 2/3를 차지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확연히 달라진 7대 인천시의회. 어떻게 원구성을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이 이루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당이죠. 새누리당의 원내 대표를 맡은 오흥철 시의원과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
의원: 안녕하셨습니다.

MC: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MC: 한차례 낙선하시고 나서 시의원에 재선이 되신 건데 당선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.

의원: 새누리당과 저를 시민과 지역주민께서 선택해 주셔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한 번 더 저 오흥철을 믿어주신 유권자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MC: 네, 이번 지방선거. 세월호 참사 속에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 속에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차지했고, 의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요. 시민들의 선택에 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보시는지요.

의원: 시민들께서 지난 4년을 지내보시면서 또한 먼저 8년 전의 안상수 전 시장과의 비교가 있었다고 봅니다. 그것은 더 좋아지려는 기대에서 송영길 시장을 택했지만은 그 분의 시정 행보를 보니깐 인천이 걱정스럽다는 표현, 그리고 야당에 다시 시정을 맡겨선 안 되겠다는 절규어린 표심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해야겠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
MC: 네, 7대 의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포부로 시의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가요.

의원: 여당이 다수이지만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 야당 대표와 의논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
MC: 상생하는 의회 방점을 찍고 계시는군요. 7대 시의회 임기가 바로 7월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.

의원: 그렇습니다.

MC: 원구성 협상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야당의 원내대표는 이한구 시의원으로 결정이 된 거죠.

의원: 그렇습니다.

MC: 원구성 협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.

의원: 이한구 대표를 한번 만나서 의논을 했고, 근시일내에 다시 만나서 자세하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.

MC: 네,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, 새누리당에서는 부의장 1석, 상임위 1석을 양보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.

의원: 제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.

MC: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.

의원: 부의장 1석과 상임위 2석을 요구하고 계신데.

MC: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달라 이런 얘기군요.

의원: 그렇습니다.

MC: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무리하다고 보십니까.

의원: 저희로써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, 저희로써는 특별위원장직을 1석 더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

MC: 네, 특위 하나 더 주시겠다. 조금전 설명이 상생하는 의회를 만드시겠다. 그랬는데 원구성부터 난항이 있는 모양이군요.

의원: 어차피 야당 의원들도 12분제시니깐 그분들끼리 의견 조율을 또 하셔야 될 것이고 아직 의논 중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MC: 네, 상임위원장 자리가 총 몇 개 입니까.

의원: 5개 있습니다.

MC: 5개 중에 하나를 주시겠다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개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. 이걸 결정 된 거는 아니고 단시일 내에 또 만나서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니깐 결론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시민사회에서는 시장도 새누리당이고 시의회 다수당도 새누리당이다 보니까 집행부 견제,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.

의원: 저희 의원님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여야간에 견제하고 협조가 적절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믿습니다.

MC: 알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

의원: 존경하는 295만 인천 시민께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새누리당을 다수로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저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겠습니다. 인천시 집행부에 견제와 협력을 할 것이고 새누리당에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 모든 분들께 일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MC: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7대 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

의원: 감사합니다.

MC: 지난 6기와는 달리 새누리당의 의석이 2/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인천 시의회가요. 7대 인천시의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은 오흥철 시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. 현재까지는 당선인 신분인 거죠.